

데카르트의 “새로운 철학”

배 성 옥

(불어불문학과 강사)

I

〈국제화〉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기세로 우리 사회 곳곳에 들이닥치고 있는 지금, 언제부터인가 〈국제화〉란 곧 첨단과학화, 新사조화, 최신감각화를 뜻하는 말인양, 인문과학분야에서도 서양의 최첨단이론들을 속속 따라잡으려는 민감한 지식인들로 붐비는 오늘의 현실이다.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되기도 전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병처럼 우리 학계와 문단에 퍼져나가 〈脫근대〉나 〈해체주의〉나 하는 “포스트모던”한 최신용어들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같은 느낌을 받는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하면, 既存의 모든 가치체계와 낡은 전통과 권위는 이제 〈해체〉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2원론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포스트모던”한 현실에 대하여 약간만 고개를 돌려 그 뒀안길을 살펴본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날 해체되고 와해되어야 할 견고한 합리성의 틀을 갖추고 있었던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포스트모던”한 열기로 들뜬 정신을 냉정하게 가다듬고서 데카르트의 2원론—그것이 무엇이었던가, 라는 늦다면 까마득히 때늦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데카르트의 2원론이 태동되고 구축되었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전후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새 시대,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서구 인식론의 왕자 데카르트의 2원론이 거의 해체될 단계에 이르렀다는—에서 하나의 의미있는 回顧, 새 시대의 “전망을 위한 첫단계로서의 회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

* *

1650년 2월 11일 새벽, 데카르트는 53세의 나이로 스톡홀름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스웨덴 크리스티나 여왕의 초청으로 몇달 전 스톡홀름에 도착하였으나, 실제로 여왕과 1월 중순에 철학수업을 시작한지 겨우 열흘 남짓하여 독감에 걸렸으며 병상에 누운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그 자신의 말대로 “육체 속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영혼이 감옥을 떠날

시간”¹⁾을 맞이하였다.

영혼은 육신과 전혀 별개의 〈實體 substance〉로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 데카르트는 이를 자신의 신앙으로 확실히 믿었을 뿐 아니라 이에 철학적 기반을 확립하여 “명확하고 뚜렷한 방법 *méthode claire et distincte*”으로 증명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엄연한 분리의 등식 그대로 영혼과 육신에 관한 이처럼 철저한 분리주의 — 2원론을, 데카르트의 죽음을 야기했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굳이 “포스트모던”한 입장에 서지 않더라도 일종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 겨울 스웨덴에서 폐렴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된 데카르트, 그의 정신이 아무리 육체와는 별개의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는 폐렴에 걸릴 수 밖에 없는 육체적 조건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 여왕과의 철학수업은 1650년 1월 중순에 시작되었다. 君主로서의 바쁜 일정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시간을 택하고자 하는 여왕의 뜻에 따라 수업시간을 매일 아침 5시로 정했다. 크리스티나 여왕은 진정한 〈여류학자 *femme savante*〉였을 뿐 아니라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였으며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기상하는 왕성한 건강과 지적 욕구를 보였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미 53세의 나이인데다가 어려서부터 다소 약한 체질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습관이 수십년 동안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혼란으로 시끄러운 프랑스를 떠나 네델란드에서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누렸던 평화로운 생활의 리듬이 갑자기 깨어져 버리고 스톡홀름의 한 겨울 아직도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서 매서운 추위 속으로 마차를 달려 5시까지 여왕이 기다리는 궁전에 도착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육체적 조건에서도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정신이란 육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생각하는 실체 *substance pensante*〉로서 자유로운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었을까? 철학수업을 좀 늦은 시간으로 변경해 주기를 청원하지 않고 여왕의 命에 그대로 순종한 데카르트는 역시 〈구 제도 *l'ancien régime*〉 아래 살았던 〈臣民 *sujet*〉이었을 뿐, 자신이 역설했던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自我〉가 나라를 통치할 인물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꿈도 못꾸고 있던 “前근대인”이었던가?

하지만 우리의 이같은 의문 내지 비판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실없는 생각일 따름이다. 정신과 육체가 다함께 인간이라는 유기체 안에서의 물질(*matière*)로서 과학연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던 19세기 후반에는 이미 너무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데카르트의 2원론에

1) “Ç’a, mon âme, ... il y a longtemps que tu es captive; voici l’heure que tu dois sortir de prison, et quitter l’embaras de ce cors” *du récit de sa mort raconté par Clerselier, in Oeuvres, 13 vols, éd. par Charles Adam et Paul Tannery, Paris, Cerf, 1879-1913, V.- p. 482.*

어떻게든 반격을 가해야 할 상황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데카르트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철저히 분리시켜야 했던 그 시점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왜냐면 그가 살았던 17세기 전반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체계가 아직은 학계에 굳건히 자리잡고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던 한 편, 르네상스 시대의 신비주의와 함께 학문의 사생아처럼 퍼져나갔던 <르네상스 자연주의>로 인하여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한 데 뒤섞혀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라는 이름은 서양사상사에서 뚜렷한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다. 17세기 후반의 유럽사회에—지식층 뿐 아니라 사교계와 귀부인들의 살롱에까지 빠른 속도로 전파된 데카르트의 사상은 흔히 동시대인들에게 <새로운 철학 la nouvelle philosophie>으로 불리었다. 이는 물론 <아리스토텔리즘>을 뜻하는 <옛 철학 l'ancienne philosophie>에 대립적으로 쓰인 표현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17세기에 <철학>이라는 어휘가 함축했던 넓은 의미와, 오늘날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된 학문의 한 갈래로서 좁은 의미의 <철학>을 구별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데카르트의 동시대사람들은 아직 <철학>이라고 하면, 고대인들이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학문>으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철학 philosophie>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학문, 지식>을 뜻하는 또다른 어휘 <과학 science>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리즘이든 카르테지아니즘이든 오늘날 전문화되고 세분된 학문 분야—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물리학, 의학, 심리학, 생리학, 등등—일체를 포괄하는 말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하자.²⁾

그렇다면 이러한 철학, 학문, 지식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였을까? 17세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는 곧, <인간>이라는 내부세계와 <자연>이라는 외부세계에 대한 의문과 그 의문에 해답을 얻으려는 탐구와 모색의 과정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 이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를 통털어서 데카르트는 정신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을 확실한 방법으로 철저히 구분지은 철학체계를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사상사의 전환점을 기록했고 근대과학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로 추앙받고 있다. 우주와 자연이라는 외부세계에서 <정신 l'esprit>과 <물질 matière>의 구분은 인간이라는 개체의 내부에서 <영혼 l'âme>과 <육체 corps>의 구분과 완전한 등식을 이룬다. 데카르트 이전의 <옛 철학>, 즉 아리스토텔리즘—혹은 스킨라철학에 의하여 기독교신학과 접목된 아리스토텔리즘—의 체계에서 영혼은 육체의 형상(forme)

2) 오늘날 英美계통의 선진국에서 神學과 醫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 諸분야의 박사학위를 “Philosophy Doctor(Ph. D.)”라고 命名하는 사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소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약칭 CNRS>가 포괄하는 분야 또한 인문과학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학문이라는 사실을 보면, 여기에서 또한 <철학 philosophie>과 <과학 science>은 거의 넓은 의미의 學問을 뜻하는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이었으며 물질세계 즉 <자연>은 이를 창조한 神의 이미지로 이해되었다 한 편, 스킴라철학의 退潮와 함께 자연히 아리스토텔리즘 또한 失墜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자연 Nature>에 <세상만물의 영혼 l'Ame du monde>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이른바 <르네상스 자연주의 naturalisme de la Renaissance>³⁾가 쏠유럽에 蔓延하였다 르네상스 시대라는 근대의 여명기는 중세와 근대의 요소들이 한 데 뒤섞여 서로 충돌하며 들끓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에 많은 史家들이 르네상스의 세계관을 “뜨겁게 부글거리는 거대한 용광로”에 비유하기도 했다. 17세기는 그같은 여명기를 벗어나와 막 근대의 문턱을 들어선 시기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새로운 근대적 사고방식의 기초요소들이 “새로운 철학자들”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정립되면서 오늘날까지로 이어지는 근대(les temps modernes)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살았던 17세기 초반의 유럽 사상계에는 세 가지 思潮—<옛 철학>, <자연주의>, <새로운 철학>—가 아직 공존하면서 서로 혼란스럽게 충돌과 교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코페르니쿠스의 地動說을 선두로 천체물리학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한 과학혁명을 통하여 중세의 정통적 세계관, 즉 <코스모스 cosmos>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이 시대보다 더 숨막히게 흥미진진한 순간이 인류역사상 달리 어디에도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사실, <해체>니 <와해>니 하는 말들은 20세기말에 와서 <포스트모던>한 유행어가 되기 훨씬 이전, 바로 이 과학혁명이라는 大폭발의 시대에 既存의 가치체계와 세계관이 붕괴하고 있음을 목격하며 驚愕하는 지식인들의 글월 속에 절절이 나타나고 있었다⁴⁾ 이토록 혼돈스런 상황에서 “명확하고 뚜렷

3) 이는 이탈리아 Padova대학의 Pomponazzi를 중심으로, 소위 “파도바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les aristotéliciens padouens”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그들은 특히 종교적 신앙문제와 철학을 분리하였고, 민중들이 奇蹟이라고 믿는 것들을 다만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자연에 초자연적 능력이 숨어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그들 모두가 자연물질에 영혼(anima)이 숨어있다는 <物活論 animisme>을 피력하면서도 항상 아리스토텔레스—스킴라철학에 의하여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유입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원래의 아리스토텔레스—를 내세웠기에 이 16세기의 <자연주의>는 일명 <新 아리스토텔리즘>으로도 불리었다

4) 가령, 데카르트보다 20년 정도 선배였던 영국의 詩人 존 던(John Donne)이 1611년에 내놓은 다음의 詩를 읽어보자

New Philosophy calls all in doubt,
The Element of fire is quitte put out;
The Sun is lost and th'earth; and no man's wit
Can well direct him where to looke for it.
And freely men confesse that this world is spent,
When in the Planets, and the Firmament
They seeke so many new; then See that this
Is crumbled out againe to his Atomies.
'Tis all in pieces, all coherence gone;
All just supply and all Relation.

한 방법으로”⁵⁾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확연히 구별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 데카르트는 동시대인들에게 정녕 <새로운 철학>의 旗手였으며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그는 분명히 근대 사상의 시발점에 위치하고 있다. 데카르트 이후에 비로소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분리되어 점차 전문적인 학문분야로서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자연>이란 <생각하는 실체>로서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완전히 별도로 존재하는 물질의 세계일 뿐이며, 이는 정확하고 엄밀한 수학법칙(les lois mathématiques)에 의하여 기계처럼 움직여지고 있다는 원리. 이와 같은 <기계론적 자연관 mécanisme>을 토대로 근대물리학이 성립하였고 나아가 수학이 지배하는 자연과학이 인문과학과 별도로 발전하게 된 역사를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되돌아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대과학의 탄생이 물론 데카르트 혼자만의 업적이 아님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과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갈릴레오, 뉴턴과 함께 근대과학의 토대를 확립한 위대한 수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갈릴레오와 데카르트의 혁명 la révolution galileo-cartesienne>이라고도 불리는 이 17세기 과학혁명의 근본요인은 수학에 대한 적용여부의 문제였다. 자연현상을 수학공식이 아니라 <코스모스 cosmos>의 형이상학적 인식에 의거하여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옛 철학, 옛 과학>에 반대하여 일어난 <새로운 철학>은 <천체물리학 la physique céleste>에서 <지상 물리학 la physique terrestre>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수학법칙에 의하여 <세계 monde>와 <자연 nature>을 이해하고 설명하였다. 갈릴레오가 “자연이라는 책은 기하학적 글자로 쓰여져 있다”라고 闡明하고는 일반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수학문자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자연의 비밀을 캐내는 과학자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데카르트는 수학이 지배하는 물질세계와 <생각하는 주체 cogito>가 지배하는 정신세계라는 철저한 2원론을 세우고는 이에 대하여 철학적인—아마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기반을 확립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과학혁명이 일어난지 30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수학으로 정복된 물질세계에 살고 있으며 또한 너무나 넓고 깊은 차원으로 수학화된 세상에 살고 있기에, 17세기 사람들이 겪은 충격을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데카르트의 동시대에는 아직도 <옛 철학>의 추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당시의 교육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만을 가르치고 있었다.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 회부한 배후세력이 로마교회의 神學者들이 아니라 파도바大學 아리스토텔레스學派의 골수분자들이었다는

[John Donne, *Anatomy of the world, First Anniversary* (1611), Nonesuch Press, p.202. 밑줄은 筆者에 의함]

5) 1637년에 출판된 데카르트의 유명한 著書 『방법론 敍說』의 subtitle는 다음과 같다 『理性을 훌륭히 인도하여 학문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敍說 Discours de la Méthode pour bien conduire sa raison et chercher la vérité dans les sciences』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학자들 사이에는 수많은 과학적 철학적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를 내다볼 줄 알았던 새로운 철학자들은 이미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데카르트와 여러모로 의견을 달리했던 파스칼도 이미 <새로운 철학>과 호흡을 같이 하는 수학자였기에 무한한 우주, 즉 자연이 아무리 廣大할지라도 자연은 오직 물질일 따름이며, 생각(*pensée*), 즉 정신(*esprit*)을 가진 인간의 위대함과 고귀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다.⁶⁾ 또한 眞空의 존재를 실험으로 증명해낸 젊은 물리학자 파스칼이 “자연은 영혼이 없는 물질이기에 느낌도 없는데 진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렵다.”⁷⁾라고 말했을 때, 그 역시 데카르트와 함께 자연이란 수학적원리에 의하여 이해되고 설명되는 물질세계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⁸⁾ 어쨌든 이제 <새로운 철학>은 근대과학의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다지고 있었다 인간은 더이상 <어머니 자연 *Mère Nature*>—르네상스 시대에 경이롭고 풍요로운 자연에 대하여 인간이 품었던 상징적 이미지—의 치마자락에 매달린 아이가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者로서 낙천적이고 당당한 위엄을 내보이기 시작하였다.⁹⁾

II

데카르트 철학, 즉 카르테지아니즘의 근본원리—정신과 물질의 2원론적 구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였던 것이 우리의 의도였던 바, 그러나 지금까지 물질세계가 자연과학으로 발전한 상황만을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다. 사실, 데카르트 자신은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수학법칙들의 발견과 응용보다는 정신세계의 근원이 된 <생각하는 실체 *cogito*>에 관하여 형이상학적 토대를 확립하는 일에 더욱 주력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체계—물질(자연)에 관한 학문 <물리학 *physique*>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신의 학문 <형이상학 *métaphysique*>의 종합(*synthèse*)—전부가 오류의 덩어리

6) 파스칼의 <생각하는 갈대 *roseau pensant*>는 이 점에 있어서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주체 *cogito*>와 정확히 같은 노선을 밟고 있다

7) Pascal, *Oeuvres Complètes*, éd. Lafuma, Paris, Seuil, “L’intégrale”, 1963, p.221: “J’ai peine à croire que la nature qui n’est point animée, ni sensible, soit susceptible d’horreur.”

8) 그러나 데카르트의 철학체계는 진공의 존재를 否定하였다 우리는 곧 이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9) 자연의 정복자로서 인간의 승리적 이미지는 루이 14세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작품 곳곳에 스며있다고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베르사이유궁전의 <프랑스식 정원 *jardin français*>이 보여주는 기하학적 구획에 의한 造景은 수학법칙으로써 자연을 다스린 17세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므로 이를 말끔히 쓸어버리고서 자기 자신의 새로운 철학체계를 세우는 데에 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후대의 史家들이 지적하듯이 그는 아이러니칼하게도, 아리스토텔리즘의 본질 및 그 존재론(ontologie)을 모두 부정하고 이를 새롭게 대체하면서도 그럼으로써 결국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종합체계로 형성된 아리스토텔리즘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간 셈이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철저한 2원론, 두 영역에다가 너무 <기하학적 방법으로 more geometrico> 구획을 그어놓은 카르테지아니즘에 대하여 동시대인들이 공박했던 몇몇 비판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데카르트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완전히 분리하고는 그 사이에 전혀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양 편의 어느 한 쪽에 속하는 여러가지 개념들은 모두가 한 통속으로 동의어들이 되었다. 그 결과, 정신의 영역, 즉 “思考하는 것 *res cogitans*”에 속하는 개념, 이를테면 <영혼 *l'âme*>과 <정신 *l'esprit*>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 편, 물질의 영역이란 공간 속에서 길이와 넓이와 깊이로 측정되는 “外延된 것 *res extensa*”이기에 <물질 *matière*>은 <공간 *l'espace*>과 동일하고 공간은 또한 <물체 *corps*>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¹⁰⁾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2원론(*dichotomie cartésienne*)을 우리도 “기하학적으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다

영혼 = 정신 = 이성

물질 = 공간 = 물체

데카르트가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은 이처럼 물질과 공간과 물체를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했던 데에서 기인한 오류였음을 오늘날 과학사자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이다. 科學史家가 아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진공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당시 젊은 물리학자 파스칼과 <예수會>의 노엘神父(*Père Noël*) 사이에 오고간 몇 통의 편지들이다 <예수회>운영의 명문학교 <플레쥬 드 클레르몽>의 선생이었던 노엘신부는, 파스칼의 진공론에 대하여 <옛 철학>과 <새로운 철학>을 묘하게 섞어가며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박논리를 陳述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리즘의 用語들(*substance, accident, attribut, etc.*)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진공실험에서 튜브를 거꾸로 기울였을 때, 튜브 속의 수은주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남기는 공간(*espace*)은 진공(*vide*)이 아니라 “<공간 *espace*>은 모두 <물체 *corps*>이므로 우리 눈에는 빈 공간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실체 *substance*>일 수 밖에 없다”¹¹⁾는 데카르트의 이론을 내세웠던 것이다. 우리는 물론 파스칼의 승리로 끝난 이 진공논쟁의 결말을 여기에다 길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무렵에 <새로운 과학>의 旗手로 꼽혔던 데카르트가 진공을 부정해버린 오류를 범한 것은

10) Cf. Descartes, *Les Principes de la philosophie* II-10, 11, 14, 17, 18, 23

11) Cf. Pascal, *Op.ct.*, p. 200.

지나치게 철저한 방법으로 분리해 놓은 그의 2원론적 철학체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또한 그의 2원주의는 20세기 末에 와서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근대과학이 구상되고 성립되던 17세기 당시부터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진공문제 다음으로 지적되는 카르테지아니즘의 오류는, 모든 동물은 움직이는 기계라는 이른바 <동물기계론 *théorie des animaux-machines*>이었다 이 또한 극단적으로 분리된 2원론에서 기인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정신의 영역에 속하고, 자연만물은 거대한 기계처럼 수학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물질의 영역인데 이 두 영역 사이에 어떠한 중간지대도 있을 수 없는 결과, 생각할 줄 모르는 동물 전부는 물질의 영역에 소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 <동물기계론>에 동조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당대의 지식인 학자들로서, 그들 중에는 혈액순환에 관하여 연구한답시교¹²⁾ 개나 고양이를 주저없이 죽여서는 가죽을 갈라놓고 동물의 내부를 들여다보기를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를 분해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없이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에 입각하여 기독교철학을 집대성하였던 17세기 후반의 지성, 말브랑슈(Malebranche)는 자기 집의 개를 그저 하나의 기계처럼 막대기로 자주 두들겨 패주었으며 개의 신음소리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高度의 <기하학적 정신 *esprit de géométrie*>으로 추론하던 철학자들보다는 常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던 문학인들, 이를테면 라 폰텐느(La Fontaine)와 세비네 夫人(Madame de Sévigné)이 오히려 불쌍한 동물들에게 연민의 정을 표시한 글월을 남겼다¹³⁾ 우리는 이들의 작품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한 편, 파스칼이 <기하학적 정신>에 對比시켰던 <섬세한 정신 *esprit de finesse*>이 갖는 <훌륭한 觀點 *bonne vue*>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¹⁴⁾

동물기계론이나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던 데카르트의 오류는 그래도 지엽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았다. 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한 개체 안에 공존하는 영혼과 육신의 구분과 결합의 문제였다. 외부세계를 정신과 물질로 철저히 구분하고는 두 실체의 결합이나 중간개념을 일체 부인했던 데카르트였으나 인간의 내부세계로 눈길을 돌렸을 때에 비로소 <영혼과 육신의 결합 *l'union de l'âme et le corps*>에 대하여 생

12) 영국의 의사 윌리엄 하버비(William Harvey)에 의하여 <혈액순환설>이 발표된 것은 1628년의 일이었으나 이는 17세기 후반에도 아직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13) Cf. La Fontaine, 『동물의 영혼에 관하여 라 사블리에르夫人에게 보낸 담화 *Discours à Madame de La Sablière sur l'âme des bêtes*』
Madame de Sévigné, 「1672년 3월 23일자 편지」

14) Cf. Pascal, *Pensées*, L.512 - B.1.

앞으로 <판세>의 인용은 라휘마(Lafuma)의 분류에 의한 斷章번호에 L자를 붙여서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브란슈비크(Brunchvicg)의 분류번호에 B자를 붙여 표기하기로 한다

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영혼 l'âme>, <정신 l'esprit>, <이성 raison>, <생각 pensée>은 계속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한 편, 머리로 추론하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들(sentiments), 웃고 울고 화내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현상을 <영혼의 정념 Passions de l'âme>이란 이름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기에 이르렀다.¹⁵⁾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미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구분해 놓았던 탓인지, 그가 만년에 와서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 관하여 제시한 이 <새로운 철학>은 불행히도—물론 우리는 근대과학으로서의 생물학과 생리심리학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성립되기 시작한 분야임을 勘案해야 하겠다—확실한 과학의 기초가 되지 못하였고, 동시대인들의 귀에도 이상아룻한 이야기로 들릴 뿐이었다. 데카르트의 설명에 의하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영혼은 인간의 머리 속 腦의 한 가운데 있는 조그만 “술방울 모양의 샘 glande pinéale”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샘”으로부터 이른바 “동물 정신 esprits animaux”이 솟아나와 몸 속을 돌면서 육체라는 기계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었다.¹⁶⁾ 이 모든 이론은 과학적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 cogito>의 형이상학적 추론의 결과였던 바, 파스칼은 이에 대하여 자못 냉소적인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다.¹⁷⁾

데카르트의 철학체계 중에서 17세기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神의 존재와 그 증명에 관한 추론이었다. 우리의 감각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물질세계와는 완전히 별도로 존재하는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의 정상에 위치하는 神의 존재는 <생각하는 나>의 <이성>으로 명확하고 뚜렷이 인식된다는 논리¹⁸⁾, 데카르트의 이러한 기독교철학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술한 반론 또한 이미 이성주의와 형이상학의 테두리 위에서 난해한 사변철학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神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이성>의 위력은 근대정신 속에 점점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5) 1649년에 출판된 『정념론』은 데카르트와 오랫동안 편지로 철학을論해왔던 귀부인 엘리자베트(Elisabeth de Bohême, Princesse palatine)를 위하여 프랑스語로 쓰여진 작품이다. 엘리자베트夫人은 여러모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류철학자 femme savante”였다. 오래 전부터 영혼의 불멸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해왔던 그녀의 편지들로 인하여 데카르트는 영혼과 육신의 결합, 나아가 영혼이 가진 또하나의 영역, 즉 회노애락의 감정에 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탄생된 책이 『정념론』이었다

16) Cf. Descartes, *Les Passions de l'âme*, I-31, 34

17) Cf. Pascal, *Op.cit.*, p. 641 “데카르트의 철학은 『동 키호테』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자연에 관한 소설책이다. . Feu M. Pascal appelait la philosophie cartésienne le roman de la nature, semblable à peu près à l'histoire de Dom Quichot....”

18) Cf. Descartes, *Méditations*, III, IV

사실, 데카르트의 시대는 신학적으로도 위기를 맞고 있었다 르네상스가 재발견한 <古代的 모든 것 Toute l'antiquit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옛 철학>과 <자연주의>의 物活論과 함께 혼돈스럽게 어울리고 뒤섞이는 가운데, 기독교 또한 잡다한 迷信과 마술, 온갖 신화적 이교주의(paganisme)의 요소들로 혼잡한 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데카르트가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물질세계(natura)로부터 <혼령 anima>의 개념을 깨끗이 축출할 수 있었다면,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데카르트의 <새로운 철학>은 르네상스로 인하여 그 즈음의 기독교세계에 광범위하게 되살아 났던 異教(paganisme)와 자연신앙의 잡다한 요소들을 말끔히 청소해준 셈이었다.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는, 올림포스의 모든 神들과 자연 속에 깃들어있다고 믿었던 갖가지 혼령 내지 精靈들은 모두가 거짓이요 虛僞일 따름이며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神 하나 뿐임을 증명해주는 <명확하고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신앙(foi)과 확실성(certitude)의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메르센느(Mersenne), 혹은 앙트완 아르노(Antoine Arnauld)를 비롯한 당대의 신학자들은 여러 면에서 데카르트와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진리에 도달하는 이 확실한 방법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말브랑슈는 카르테지아니즘을 감탄해마지 않았고 스피노자(Spinoza)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하학적 논증으로 추론한 神의 존재론을 폈다. 그리하여 스피노자의 神이 “철학자와 과학자의 神”¹⁹⁾에서 더욱 멀리 나아가, 수학법칙이 지배하는 자연 속에 하나의 公理로서 내재하는 神, 즉 자연 그 자체가 神이라는 汎神論에 귀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데카르트 자신은 충실한 기독교인(카톨릭)이었다 그가 <명확하고 뚜렷한 방법>으로 증명했다는 神이 자연만물의 창조주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도—따라서 동시대의 과학자들과 같이 神을 자연만물이 움직이는 운동의 기원으로 보면서도—자연은 거대한 기계로서 어디까지나 <물질>이므로 창조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수학법칙에 의하여 움직일 뿐, 神은 물질과 확연히 구분되어 실재하는 <정신>의 질서, 즉 이성의 꼭대기에 존재하는 순수한 <에스프리 Esprit>라는 논리를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카르테지아니즘의 신학 체계는 어렵지 않게 18세기의 理神論(déisme)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이신론은 또한 무신론과 실제적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 밖에 없는 것임을 오늘날엔 누구나 알고 있다.²⁰⁾

19) 이는 파스칼이 신비적 신앙의 체험을 기록해놓은 「메모리알 Mémorial」의 거의 첫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Cf. Pascal, *Op. cit.*, p. 618

20) 이같은 데카르트의 기독교철학에 대하여 파스칼은 자못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나는 데카르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는 철학 전체를 통하여 神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기계가 돌아가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엄지손가락으로 튕겨주는 최초의 작동 행위 만큼을 神에게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나서는 더이상 神이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았다.” (Pascal, *Pensées*, L 1001, *Op. cit.*, p 640)

*

* *

데카르트의 <새로운 철학>은 近代의인 모든 것의 기본틀이 짜여지기 시작하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학문>으로서 서양정신사의 물줄기를 바꾸어놓은 위대한 의식혁명의 커다란 몫을 담당하였다. 흔히들 말하는 <근대성>이란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든 과거와의 단절을 뜻한다면 데카르트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옛 철학>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자연현상을 새로이 정의하였던 것이다. 다만, 세계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그의 새로운 설명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학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형이상학의 정립이었기에 동시대인들과 후대의 비판을 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장황하고 세부적인 갖가지 설명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황당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근대과학은 결국은 그가 택한 방향을 따라감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²¹⁾ 그런즉, 카르테지아니즘은 르네상스와 위마니즘(humanisme)으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한 낙천주의적 상승기류를 타고, 理性이라는 확실하고 단단한 기반으로 근대사상의 根幹을 구축하면서 점진적 진보를 계속하였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는 여전히 근대(les temps modernes), 그리고 근대성(modernité)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다. 이 근대의 여명기에 새로운 학문의 주춧돌을 놓았던 한 철학자를 함께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도 그 주춧돌 위에 세워진 건물 속에 살고 있음을 새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Textes

René Descartes, *Oeuvres Complètes*, éd. par Charles Adam et Paul Tannery, Paris, Cerf, 1879-1913, 13vol.

———, *Oeuvres philosophiques*, présentées par F. Alquié, Paris, Garnier Frères, 1963, 3vol.

———, *Oeuvres et Lettres*, présentées par A. Bridoux, Paris, Gallimard, col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53.

Blaise Pascal, *Oeuvres Complètes*, présentation et notes de Louis Lafuma, Paris, Editions du Seuil, coll. “L’Intégrale”, 1963.

21) 金永植 編著, 『科學史 概論』, 茶山出版社, 1983, p. 183.

II. Ouvrages consultés

金 永植 編著, 科學史概論, 서울, 茶山出版社, 1983.

李 桓 著,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 서울, 민음사, 대우학술총서, 1993.

Alexandre Koyré, *Du monde clos à l'univers infini*, Paris, Gallimard, 1973.

———, *Etudes d'histoire de la pensée scientifique*, Paris, Gallimard, coll. "TEL", 1985.

Robert Lenoble, *Histoire de l'idée de nature*, Paris, Albin Michel, 1969.

———, *Mersenne ou la naissance du mécanisme*, Paris, Vrin, 1943.

Geneviève Rodis-Lewis, *Descartes*, Coll. "Textes et débats",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84.

Jeanne Russier, *Sagesse cartésienne et religion*, Paris. PUF, 1958.

〈Résumé〉**“La nouvelle philosophie” de Descartes****Seong-Ok BAI**

Si la philosophie de Descartes fut surtout connue de ses contemporains sous le nom de “la nouvelle science”, c’était évidemment qu’elle fut considérée comme l’opposant de l’ancienne science d’Aristote. Mais il est à remarquer qu’au XVIIe siècle, l’aristotélisme n’était pas le seul opposant de la nouvelle science. Le schéma s’affirmait plutôt ternaire, à savoir l’aristotélisme, le cartésianisme et le naturalisme de la Renaissance.

L’histoire des idées scientifiques nous apprend qu’au moyen âge, l’aristotélisme a dominé et atteint son apogée au XIIIe siècle dans la scolastique. Mais dès la Renaissance, si l’une des plus grandes oeuvres de celle-ci a été la redécouverte et donc le retour à tout l’héritage de l’antiquité, par le fait même, l’aristotélisme fut relativisé avant de se trouver plus tard sur le chemin de l’effondrement total. Or, une fois que l’ontologie aristotélicienne est détruite et avant qu’une ontologie nouvelle, qui s’est élaborée seulement au XVIIe siècle, n’ait été établie, on n’avait aucun critère capable de distinguer le vrai d’avec le faux.

Le naturalisme de la Renaissance est né pendant cette énorme lacune historique de l’esprit critique. Les philosophes naturalistes, l’école de Padoue en tête, ont commencé par expliquer les phénomènes merveilleux en vertu d’une action de la nature, et qu’ils ont fini par doter la nature d’une puissance magique en l’identifiant avec l’Ame du monde. Alors, la dualité nature-surnature et la distinction entre le matériel et le spirituel que le système traditionnel avait gardées du moins comme orthodoxes, sont devenues chez les naturalistes objet d’une étrange confusion.

C’est là que l’on attribue à Descartes le mérite d’avoir posé, par une méthode “claire et distincte”, les principes de la philosophie moderne: la dualité rigoureusement établie par la séparation radicale entre “la substance pensante (l’esprit)” et “la substance étendue (la matière)” à propos du monde, et celle entre l’âme et le corps à propos de l’homme. Aussi, la nature est-elle enfin dépourvue d’âme, obéissant à des lois mathématiques. En raison de la matérialité de la nature, le cartésianisme a d’abord repoussé toute thèse animiste propre au naturalisme de la Renaissance. Ensuite, par le mathématisme, à savoir les principes

mathématiques capables d'expliquer les phénomènes de la nature inanimée, la nouvelle philosophie cartésienne a totalement rompu avec l'ancienne philosophie aristotélicienne qui était une philosophie de la qualité et non-mathématique.

On sait que les courants multiples qui devaient former la pensée moderne ne passe pas tous par Descartes. Et aujourd'hui, les travaux des historiens et des érudits nous ont fait voir les nombreuses erreurs de Descartes — déjà sévèrement critiquées par ses contemporains dont Pascal — dans son élaboration d'une nouvelle ontologie, à savoir la métaphysique du "nouveau monde": sa négation de l'existence du vide, sa théorie des animaux-machines, ses explications "inutiles, incertaines et même pénibles" sur l'union de l'âme et du corps ainsi que les "passions de l'âme". Cependant, en dépit de toutes ces erreurs qui étaient en effet dû à une ontologie trop unilatéralement dualiste, à une géométrisation à outrance de la nature, la philosophie cartésienne est reconnue aujourd'hui comme pierre angulaire dans l'architecture de la pensée moderne. De même, à l'époque moderne qui est la nôtre, on constate que ce fut Descartes qui le premier formula les principes de la science nouvelle.